

상하수도 국비 확보 총력

이향로 진안군수 일행 기재부 방문, 국가예산 927억원 반영 요청

진안군은 지난 16일 이향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2018년 상하수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이날 군수 일행은 노동환경예산과를 방문해 진안군 하수도 설치사업과 인공습지 조성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이 내년도 국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편성에 최우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2018년도 신규 하수도 설치사업 총 6개 사업에 398억원과 인공습지 조성사업 130억원,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에 393억원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용담호 맑은 물 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국가예산으로 신청해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전북도와 충남도 등 7개 시·군 150만명의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용담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 진안군에서는 10년간 군민자율수질관리로 수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용담호 주변과 섬진강 상류지역 92개 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이 미설치되어 생활하수가 용담호 및 지방상수원인 섬진강 상류로 직접 유입되어 진안군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어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 및 지방상수원인 용담호와 섬진강 상류 수질 개선으로 맑은 물 보전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398억원의 국가예산 확보에 간간힘을 다하고 있다.

군은 오염부하량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저감을 위해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상류지역의 오염부하량이 높은 지방하천 하류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유입수질 개선을 위한 인공습지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진안군 상수관로 총 530km 중 20년 이상 노후돼 개량이 시급한 102km를 2018년부터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39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확보를 건의했다.

이향로 군수는 "국가예산 신청 전부터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해 청정진안 보전을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국가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업인 소통의 장·화합의 장

무주군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성료

제29회 무주군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가 지난 16일 안성면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가 주관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백경태 도의원, 그리고 성태근 전라북도연합회장을 비롯한 한농연 회원 및 가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체육행사(족구, 투호, 줄다리기 등), 화합 한마당(장기자랑 등)에 함께 했으며, 무풍면 이정구 씨와 살천면 박범수 씨, 적상면 신기수 씨, 부남면 윤상에 씨가 무주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안성면 김선환 씨가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살천면 양승배 씨가 중앙회장상을, 적상면 정삼근 씨가 도회장상을, 길명섭 씨가 농어민신문사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

농협무주군지부 이정환 지부장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임영택 소장, 한국여성농업인무주군연합회 정미화 회장, 청솔산업 이운수 전무, 신안 기공사 정천수 대표는 한국농업경영인무주군연합회에서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여러분은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을 위한 리더이자 인적자원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며 "이 자리 상에 씨가 무주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안성면 김선환 씨가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살천면 양승

배 씨가 중앙회장상을, 적상면 정삼근 씨가 도회장상을, 길명섭 씨가 농어민신문사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

농협무주군지부 이정환 지부장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임영택 소장, 한국여성농업인무주군연합회 정미화 회장, 청솔산업 이운수 전무, 신안 기공사 정천수 대표는 한국농업경영인무주군연합회에서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여러분은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을 위한 리더이자 인적자원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며 "이 자리 상에 씨가 무주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안성면 김선환 씨가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살천면 양승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아카데미, 22일 정호승 강연

장수군은 장수아카데미 무료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장수아카데미는 22일 오후 3시 장수군 한누리 전당 소공연장에서 정호승 강사(사진)를 초청,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작품마다 부드러운 언어와 심미적인 상상력을 인상적인 어구로 담아내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호승 시인은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에 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로 문단에 등단하고 소설시문학상, 상화시인상, 공초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슬픔이 기쁨에게', '별들은 따뜻하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여행' 등 시집을 출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저탄소실천 환경정화운동

전북녹색미래실천연합이 주최하고 전북녹색미래실천연합 무주군지부가 주관한 저탄소생활실천을 위한 환경정화운동이 지난 16일 실시됐다.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주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깨끗한 무주 실현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무주군 이태현 부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버섯마루, 흰목이버섯 대량 재배 성공

튐밥배지 특화사업 추진 성과... 비타민 D 함량 '최고' · 연중 6회 이상 생산 가능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 모양도 맛도 특이하고 귀한 국내산 흰목이버섯 대량 재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흰목이버섯은 식이섬유소와 칼슘, 특히, 햇빛을 자주 못 보고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D를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버섯마루농업조합법인인 2016년도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공모사업으로 튐밥배지 흰목이버섯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흰목이버섯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흰목이 종균은 다른 버섯과 다르게

홀로 잘 자라지 못하며 생장이 매우 느리고 약한 버섯이나 공생균과 같이 자라면 생장이 매우 빨라진다.

그동안 두개의 종균 성장속도 조절 등 어려움이 있어 국내산 재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버섯마루 김병수 대표의 5년간의 노력으로 이번에 대량 재배에 성공하게 됐다.

또한 버섯마루농업조합법인인 국내산 튐밥배지 사용한 배지를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우수농산물 품질인증(GAP)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체로 목이버섯 국내산 배지 생산업체 중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버섯마루농업조합법인 김병수 대표는 "흰목이버섯은 다른 버섯과 다르게 밀폐식 전용 재배에서 재배하는 까다로운 버섯이나, 재배기간이 45일 내외로 짧아 연중 6회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은이버섯으로 중국산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나, 진안에서 흰목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산 흰목이버섯을 대중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흰목이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최고로 많은 식품으로 흰목이버섯 차류, 분말류 등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귀농귀촌 우수마을 2곳 선정

마령 오동 · 주천 안정마을... 인센티브 500만원씩 지원

진안군은 지난 16일 귀농귀촌 우수마을로 마령면 오동마을과 주천면 안정마을을 선정하고 각각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우수마을은 초고령화, 과소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력난과 인구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유치 동기부여와 통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마령면 오동마을은 귀농한 최미희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 쓰레기 3NO운동, 건강걷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모든 마을 애경사에 모든 주민이 동참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들어올 경우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택알선과 이사를 거들어주고 고추장, 된장 등을 나누며 정을 쌓고 있으며, 젊은 귀농귀촌인들은 어르신들을 대신해 마을 행사에 앞장서는 등 성공적인 화합 분위기를 만들어 꾸준히 귀농귀촌이 늘고 있는 마을이다.

또한 주천면 안정마을은 귀농귀촌인이 50%가 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마을 임원진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함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 귀농귀촌인들은 도시에서의 인맥을 활용하여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마을 소득증대에 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정례회 개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 세입세출결산 · 예비비 심사

장수군의회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실시한다.

16일부터 23일까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재만)를 구성, 7개 읍·면 27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과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비효율인 발생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

점을 두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6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규태)를 구성하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계획이다.

첫날인 16일 이희숙 의원의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기반시설확충과,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를 보

기 위한 체육시설확충,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군정질문을 했다.

이에 최용득 장수군수는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애인체육관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각종 자료를 집대성하고 비교 분석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통해 군민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 국제대회 디스 참가 및 우승
-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 국가대표 코치 역임
- 일본 신타포 국제대회 참가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력 취득
-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